

## 한국대중음악상 (Korea Music Awards)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음악시상식으로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작품만을 심사하며, 시상식은 이듬해 2월 3~4주차에 열린다. 2004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그래미상처럼 대중음악 비평가들이 선정해서 상을 수여한다. 기존의 방송사 주도의 연말 가수상 및 인지도와 음반 판매량만으로 상을 수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음악성을 기준으로 하는 권위 있는 음악상을 만들자는 것이 한국대중음악상의 취지이다. 대중음악 평론가, 대중음악 기자, 음악 전문 방송, 라디오 피디 등이 수상자 선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사를 하는 음악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6회 시상식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작스런 후원 철회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시상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2019년 16회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 주최측인 선정위원회가 그래미의 나라스(NARAS)와 같이 역사가 깊지도 않고 방송사 주도의 시상식이 아니다보니 작은 자본규모로 시상식이 기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래미나 마마와 같이 화려하고 성대한 무대는 찾아보기 힘들며, 실제 시상식도 수상자의 공연, 축하공연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대중음악상이 평단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 음악시상식의 기준이 대부분 대중성에 치우쳐 있는 가운데,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유일한 음악 시상식이기 때문이다.

주목해서 보면 좋을 부분은 대중성이 있으면서도 본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아티스트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아는 아티스트들 중 음악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작품성이 있는 아티스트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본 시상식을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여러 작품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소개받는 자리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

시상부문	
종합분야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신인
장르분야	최우수 메탈&하드코어, 최우수 록, 최우수 모던록, 최우수 포크, 최우수 랩&힙합, 최우수 팝, 최우수 알앤비&소울,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노래와 음반
네티즌 선정	남자 아티스트, 여자 아티스트, 그룹
특별분야	공로상

### ● 선정과정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시상이 결정된다. 선정위원은 매년 선발하고 음악산업의 이해당사자인 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평론가, 작가, 방송PD 신문잡지 기자)들이 선발된다. 매년 40인 이상의 위원들이 시상을 결정한다. 3차에 걸쳐 부문별 예비후보자->최종후보자->수장자를 선정한다.

### ● 2019년 주요부문 수상자



올해의 음반  
soony eight ...

장필순



올해의 노래  
FAKE LOVE



올해의 음악인  
방탄소년단



올해의 신인  
매리



공로상  
양희은